

## 2. 해방후 전남지역의 정치상황

여순사건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경비대와 경찰의 모순관계, 남로당 내부의 한계, 그리고 당시 민중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들이 응축되어 폭발한 것이었다. 여순사건은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해방 후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정치투쟁 과정에서 배태됐으며 전남 동부지역의 독특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역사의 표면으로 부상하게 됐다.

### 1) 미군정의 초기 점령정책과 인민위원회

일제의 패망과 해방은 한반도에 정치적 공백상태를 남겨놓았다.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각기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기 전,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는 자치적인 결사체로서 질서유지·세금징수 등 기본적인 행정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사정은 전남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45년 9월 23일 미전술점령군(제40사단 2개 대대)이 전남에 도착해 광주와 순천에 주둔하기 시작했을 때 일제의 행정 및 경찰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고, 인민위원회는 전남지역을 통치하는 '실체적인 정부'의 구실을 하였으며, 어떠한 정치집단도 인민위원회의 활동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 못했다.

인민위원회는 전술군이 주둔하였던 광주와 순천 주변의 몇 군을 제외하고는 도 전체에서 질서유지, 세금징수, 적산관리, 심지어는 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전라남도의 정치적 상황은 10월 말부터 급격히 변화였다. 미군정은 강력한 점령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제40사단 2개 대대를 철수하고 더욱 강력한 제6사단 20보병연대를 배치했다. 또 도의 행정기능을 담당할 제101군정단이 10월 23일 광주에 도착했다. 미군정은 점령 초기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말단부락까지 자신의 영향력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치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전술점령군과 군정단이 필요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쉽게 침투할 것이라고 판단되던 인민위원회를 적대시하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일제 때의 경찰·관리·친일세력 등을 육성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일제잔재의 청산은 미국에 의해 해방 직후부터 거부된 셈이다.

제101군정단이 10월 27일 전라남도에 군정을 선포한 후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일본인 관리를 약 3주 동안 유입시키면서 그들의 자문을 통해 친일경력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우익인사나 일제하의 한국인 관리·경찰을 도행정기구에 충원시킨 한편 전라남도인민위원회·치안대를 해산시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미군정의 초기점령정책은 전라남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정반대로 역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 미군정은 그때까지 광주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주요 우익단체의 출현을 촉진케 한 반면, 도인민위원회는 11월 20일 1개의 정당으로 등록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광주에서 도인민위원회를 무력하게 만든 미군정은 다음 단계로 군인민위원회를 분쇄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미군정은 12월 도경찰의 재편성이 완료될 무렵 제20보병연대 일부 병력과 도경찰로 편성된 기동타격부대를 구성해 '급진적' 성향을 지닌 군경찰·치안대·지방관리들을 습격했다. 대부분의 경우 도고문회의를 통해 추천된 인민위원회 출신 군수, 읍장, 경찰서장 등이 적산을 '불법적'으로 관리했다거나 '월권행위'를 했다는 명분으로 체포되었다. 이러한 미군정의 정책은 12월 초 광주와 인접한 나주군에서 시작해서 이듬해 3월까지 거의 마무리됨으로써 무안·진도·광양 등 몇몇 군을 제외하고는 군행정과 경찰기구는 거의 우익인사 혹은 일제시대 관리·경찰로 충원되었다. 이에 힘입어 1946년 6월경이면 보수우익세력은 대부분의 군에서 지배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인민위원회는 1946년 '가을항쟁' 이전까지 농민조합, 노동조합, 학생단체, 청년단체, 부녀단체

등의 조직과 민중의 지지기반을 가진 면·리·촌락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정치세력으로 존재했다. 군단위의 강력한 정치집단인 인민위원회 조직이 파괴되는 것은 1946년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전개된 '가을항쟁'을 통해서이다.

## 2) 1946년 가을항쟁과 전남 동부지역

전남 동부지역(순천·여수·광양·구례·곡성)에서는 1946년 가을항쟁 동안 경찰, 지방관리, 지주, 우익요인과 청년단에 대한 습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해방 직후 전남 동부지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에 대응한 미군정 중대의 점령정책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해방을 전후 한 시기에서 1946년까지 전남지역은 인구변동률, 지주의 수취율을 나타내는 소작률 등 사회정치적인 지표를 통해 살펴볼 때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갈등의 정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표만 가지고는 전남지역 군 차원의 정치적 특수성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 지리적 조건과 인민위원회의 성격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해안선을 끼고 있는 반도나 섬인 군지역(여수·고흥·진도·해남·함평·무안·화순)은 대부분 논농사 비율이 60% 이하였고, 이 가운데 여수·고흥·진도 3개 군에서는 항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어업종사자가 많았던 군들과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항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민위원회가 통치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여수·순천·구례·고흥·강진·장성·담양의 7개 군 중에서 4개 군(여수·순천·구례·고흥)에서 항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점은 해방 직후 각 군의 정치적 상황이 항쟁의 발생여부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항쟁이 발생하지 않은 8개 군 중 5개 군이 제69군정중대가 통치했던 지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 동부지역의 5개 군(순천·여수·구례·곡성·광양)을

전남의 주요 사회·정치적 지표

(1946. 현재, 단위 : %)

구분 지역	인구변동			소작률	농농사비율	인민위원회 통치여부	군정중대 통치여부	항쟁 발생여부
	1930~1940	1930~1946	1944~1946					
황 산	-2.3	+21	+14	72	60~70	0	53중대 (군별 직접통치)	0
장 성	+2.5	+27	+17	72	60~70	×		0
영 광	+9.6	+30	+7			0	55중대 (일괄 간접통치)	0
담 양	-3.5	+24	+20	72	60~70	×		0
무 안	+2.2	+29	+15	68	50~60	0	45중대 (군별 직접통치)	0
영 암	+8.3	+42	+20	72	60~70	0		0
함 평	+9.7	+44	+17	68	50~60	0	61중대 (일괄 간접통치)	0
해 남	+23.1	+51	+14	68	50~60	0		0
강 진	+10.1	+45	+19	80	70~80	×	69중대 (감독통치)	0
완 도	+20	+37	+10	72	60~70	0		×
진 도	+5.7	+26	+15	60	40~50	0	69중대 (감독통치)	×
장 흥	+10.3	+36	+19	80	70~80	0		0
화 순	-1.9	+14	+10	68	50~60	0	69중대 (감독통치)	0
나 주	+5.4	+41	+22	72	60~70	0		×
고 흥	+22.5	+43	+13	68	50~60	×	69중대 (감독통치)	×
보 성	+4.0	+36	+22	80	70~80	0		0
순 천	+7.4	+41	+22	80	70~80	×	69중대 (감독통치)	×
여 수	+25.0	+59	+16	60	40~50	×		×
구 례	-6.2	+19	+19	80	70~80	×	69중대 (감독통치)	×
곡 성	-7.5	+20	+14	72	60~70	0		×
광 양	+40	+31	+22	80	70~80	0	69중대 (감독통치)	×

비고 : 목포·광주는 제외됨.

통치했던 제69군정중대의 점령정책과 항쟁의 발생여부에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

전남 동부지역 인민위원회의 성격도 항쟁의 발생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들 5개 군의 인민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지도부 구성원의 과거경력, 직업적 출신배경, 정치적 성향 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으며, 다른 지역과 달리 좌우익이 공존하는 타협적 정치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다 제69군정중대는 다른 군정중대와 달리 세부적인 지방문제에 사사건건 깊이 개입하지 않고 행정 차원의 업무만을 감독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미군정과 인민위원회는 무력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양자가 공생공존하는 양상을 띠었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탄압하거나 해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좌우익의 갈등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8월 20일 결성된 여수건국준비위원회(여수건준)는 좌우익이 공존하는 조직이었다. 위원장 정재완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익인사였으며(후에 초대군수, 제2~5대 국회의원), 부위원장 이우현은 큰 정미소를 경영하는 갑부였고, 관리부장 김경택은 일제시대에 도평의원을 지낸 친일유지였다. 또 노동부장 이창수는 좌익계 독립운동가였으며(여순사건에 참가), 치안부장 김수평은 일본 명치대를 졸업한 좌익계 지식인이었다.(한국전쟁 때 좌익계 성향을 나타냄)

이 같은 인적 구성을 지닌 여수인민위원회는 군청을 접수하지 않은 채 진남관에 본부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치안대도 경찰서를 접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당시 여수 읍민과 미군정장교들에게 높은 신망을 얻었고 여수인민위원회 역시 일제시대의 경찰 및 행정관리들과 큰 마찰 없이 활동했다. 여수와 함께 동부지역의 전반적 정치상황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순천의 경우

여수와 어느 정도 대조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좌우익 갈등이 빈발했던 지역이었다. 순천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8월 17일경 좌익이 배제된 채로 김영수, 박영진 등의 우익인사가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좌익은 건준에서 배제되자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우익 일색인 건준을 습격하기도 했다. 9월 23일 미전술군이 순천에 진주하자 건준에 참여했던 우익계 인사들은 9월 25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지부로는 처음으로 한민당을 결성했다. 이에 따라 좌익계 인사들은 김기수(여순사건에 참가)를 중심으로 건준을 인계받아 인민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순천의 경우 우익세력은 결집력이 매우 강해 군 중앙에서 전반적인 정치상황을 지배하고 있었고, 좌익세력도 상대적으로 결집력이 강해 주로 면단위 이하에서 농민조합 등과 같은 조직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순천의 경우 좌우익 갈등의 정도가 동부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공존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순천에서 좌우익 갈등과 협력이 공존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군정중대의 자율적인 통치방식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광양·곡성·구례의 3개 군에서도 좌우익이 공존공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방 직후 전남 동부 지역 5개 군의 정치적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 직후 전남 동부 5군의 정치현황

	여 수	순 천	광 양	구 례	곡 성
인민위원회 통치여부	×	×	0	×	0
좌우익 협의 우열	우익 우세	우익 우세	좌익 우세	우익 우세	우익 우세
좌우익 관계	공 존	갈 등	공 존	공 존	공 존

출전 : 안종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5.

동부지역의 인민위원회는 대체로 초기 군정중대의 통치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중앙이나 광주 도지부의 지시를 거의 따르지 않았고, 동시에 참여한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일상적인 정치·경제 문제에 역점을 두었던 것 같다. 이 같은 상황은 도의 중앙인 광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조건의 영향이 컸으며, 이 지리적 변수는 해방 직후의 정치적 특성뿐만 아니라 1946년 가을항쟁의 발생여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도 해방 직후 동부지역의 정치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쪽(순천)으로는 조계산 줄기가, 동쪽(광양)으로는 백운산과 섬진강이, 북쪽(구례·곡성)으로는 지리산이 막고 있어 전남 서북지역, 전북 동남지역, 경남 서남지역과 고립된 여수·순천 등은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경제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순천은 당시 풍부한 미곡 생산·집결지이자 교육도시였으며, 여수는 해방 전까지 주요 미곡·수산물의 수출항이었고, 일본인들이 토지와 소비재산업에 투자한 교역산업의 중심지였다. 이런 측면들이 동부지역 인민위원회의 토착적 성격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동부지역의 특수성은 제69군정중대의 내부적 구성에서도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제69군정중대는 비교적 많은 해군장교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주도권은 육군이 쥐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군장교들은 행정문제를 놓고 육군장교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었으며, 해군장교들의 잦은 본국귀환에 따른 인원교체가 불가피했다. 제69군정중대는 광주군정대의 점령정책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실시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전라남도 전체의 통치임무를 맡고 있던 제101군정단의 통치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광주 주변의 군과 인민위원회의 성격이 급진적이라고 평가한 곳에 대해서는 인원과 장비가 풍부한 중대가 직접통치를 행사했으며, 미군장교가 군수로 취임해 직접 행정과 인사문제에 개입했다. 또 인원과 장비가 부족한 중대는 한국인을 군수로 내세우고 미군장교가 중요한 문제에만 개입하는 간접통치방식을 택했는데, 주로 인민위원회가 덜 급진적인 지역이 이에 해당됐다.

제69군정대는 원래 직접통치방식을 택했으나 여수와 순천의 인민위원회 성격이 타협적이라 거의 자유방임에 가까운 정책을 실시했다. 따라서 전남 동부지역도 1945년 12월에서 1946년 2월에 걸쳐 다른 지역처럼 광주 기동타격부대가 인민위원회의 치안대를 강제해산시켰다. 이 지역 경찰은 1946년 5월이 돼서야 재구성됐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치안대에 참여했던 좌익계 인사가 경찰에 충원되기도 했다. 1946년 '가을항쟁' 동안 전라남도의 인민위원회나 이에 연계된 조직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좌우익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되었다. 반면 항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동부지역에서는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 등 그 외곽조직들이 거의 아무런 손실을 받지 않았으며, 좌우익 갈등도 격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을항쟁 이후 1948년 2월 '구국투쟁'이 전국을 휩쓸 때까지 동부지역의 인민위원회는 군단위 이하 지역에서도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 3) 단선단정 반대투쟁

해방 초기 전남 동부지역에서 좌우익의 갈등·공존관계는 1948년 초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47년 미소공위가 잇따라 실패하고, 미국과 소련이 남북분단을 급속도로 추진하는 시점인 1948년 2월에 들어서면서 전남 동부지역의 정치적 특수성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때 변두리지역에서는 남로당의 영향력이 거의 미미했으며, 자생적으로 분출하는 민중들의 봉기를 제어하기에 조직력이 매우 취약했다. 동부지역에서 좌우익의 타협적인 공존관계는 중앙정치 차원에서 분단이 기정사실로 되는 시점인 1948년 봄부터 급속하게 와해되기 시작한다.

#### (1) 2·7구국투쟁

1948년 2월 6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은 '소련의 부정적 태도'를 들어 단독선거가 불가피하다

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남로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은 2월 7일을 기해 전국적인 파업과 파괴, 시위, 맹휴 등을 선전 선동해나갔다. 이른바 '구국투쟁'은 경인지역 일대를 비롯하여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에도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파업·파괴·시위·맹휴지역이 확대되었으며 전국의 교통·통신망, 생산·행정기능이 일시 마비되는 사태로 발전했다.

전기 구국투쟁시기인 2월 7일에서 24일까지는 주로 파업·파괴·맹휴·전단살포·시위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경남과 수원 일대에서는 경찰서와 관공서 습격, 우익에 대한 테러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전남지역에서는 습격과 테러 등의 폭력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광주·목포·여수 등의 지역에서 노동자의 파업과 학생들의 맹휴 정도가 고작이었다. 2월 말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인 소요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2월 26일 유엔소총회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 하면서 폭력적인 사태로 발전했다. 전국적으로 경찰서·면사무소 습격, 우익에 대한 테러가 속출했다. 25일부터 27일 사이 전북에서만 34건의 경찰지서 습격사건이 발생하여 2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전남에서는 3·1절 국경일에 주한미사령관 하지 중장이 '남한에서 총선거 실시'를 발표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폭력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남에서는 3월 1일과 8일 사이에 광주·목포·장성·함평·무안·강진·장흥·고흥·순천·구례·진도 11개 군에서 발생했다. 3월 13일에서 27일 사이에는 광산·장성·담양·나주·영암·장흥·보성·구례 8개 군에서 나타났다.

1948년 3월에 들어서면서 전라남도의 2부 14개 군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으며, 동부지역에서도 구례와 순천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군중들의 습격목표는 경찰지서, 대동청년단, 민족청년단, 민주학생연맹이었으며 지방관리와 유지, 한민당원, 미곡창고에 대한 습격 테러사건도 빈발했다. 주목할 점은 한독당원이나 그 사무소에 대한 테러나 습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군중들은 수백에서 수천 명 정도가 집결해서 '유엔한위반대', '양군동시철수', '단선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돌·곤봉·죽창·도끼·일본도·휘발유·다이너마이트 등을 사용하여 경찰서를 습격했으며 총과 탄약이 탈취되는 사례도 자주 나타나고 있었다.

구례에서는 3월 1일 지서습격 2건, 테러가 3건 발생하여 대동청년단원 4명 부상, 군중 중에도 사망 12명, 중상 7명, 경상 2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한 14일 산동면 예안리에서 50명의 군중이 10명의 경찰과 투석전을 벌여 경찰의 발포로 1명이 사망한 기록이 보인다. 순천에서는 3·1절 기념행사를 마친 남로당원들이 주동이 되어 대대적인 데모가 벌어졌다. 이와 때를 같이해 순천중학을 비롯 남녀중학교의 민주청년동맹 학생들이 '단독선거반대'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나와 우익계인 민주학생연맹 학생들과 대치했다. 또 남로당에 선동된 농민·노동자들이 삽·괭이·몽둥이 등을 들고 순천중학의 민주학생연맹 학생들을 포위하자,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한 경찰의 발포로 2명의 남로당원이 쓰러져 이날의 사태는 가까스로 수습됐다는 미군정의 기록이 있다.

후기 구국투쟁기간에 구례와 순천에서도 폭력사태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전남지역에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6개 군 가운데 동부지역인 여수·광양·곡성의 3개 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순천의 경우 시위 사태에 가까운 것으로 1948년 3월의 시점에서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군중이 동원되고 있었지만 폭력의 정도는 낮고 그나마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 (2) 5·10단독선거 저지투쟁

1948년 5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일이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역사적인 날이었지만 제헌의회를 구성하기까지에는 적잖은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어야만 했고, 반전쟁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미군정은 1948년 3월 30일 5·10단독선거를 위한 유권자 및 입후보자 등록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단선단정 반대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략목표는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선거의 정당성을 최대한 침해한다는 전술이었다.

2월과 3월에 걸쳐 전개된 이른바 '구국투쟁'은 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미군정을 향해 '단선불가'를 주장하는 방어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었다. 그러나 4월에 들어서는 선거를 강행하려는 미군정과 이승만, 한민당 등의 우익세력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실력으로 단독선거를 저지한다는 공격적 측면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남로당은 이러한 전술의 전환, 그리고 구국투쟁 과정에서 생긴 조직력의 손실을 감안해서 정상적인 당조직과 별도로 중앙당의 지시를 받는 선전선행대와 도당의 지시를 받는 유격대, 백골단, 인민청년단 등과 같은 특수조직을 4월 1일부터 편성하였다. 이에 대응해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은 예상되는 남로당의 단독선거 파괴공작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둔 4월 중순에 "향토방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외래의 불순분자 내지 모략선동의 여지를 봉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각 경찰지서 혹은 동·리·가로단위로 '향보단' 설치를 지시했다.

향보단은 경찰관, 구청장 혹은 경찰서장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경찰력을 보조한다는 취지로 전국적 규모로 설립됐는데 만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남자는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380만으로 추산되는 향보단의 설치는 일제 '국민의용대'의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향보단은 선거가 끝난 직후 5월 22일 딘 군정장관의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좌익의 활동이 치열했던 지역에서는 '의용단' 등의 명칭을 걸고 계속 존속했다.

전남지역에서 남로당의 5·10단독선거 저지투쟁은 4월 5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됐으며, 3월에 비해 비교적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광주·나주·함평·영광·담양·영암·보성·고흥·구례 등에서 발생했는데 초기에는 선거등록사무소, 후기에는 우익 및 지방관리에 대한 테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찰지서 습격은 상대적으로 덜 했지만 3월과 마찬가지로 총과 탄약을 탈취해갔다. 습격군중의 규모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국투쟁 당시에 비해 미군정과 우익세력의 방어력이 대폭 증가한 데다 좌익의 투쟁력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구례군에서 3건의 테러사건이 기록되고 있다. 4월 28일 구례군 토지면에서 숫자 미상의 군중이 대동청년단 단장과 선거사무원을 습격했으며, 4월 29일에는 구례군에서 20명의 군중이 4명의 우익인사의 집을 습격하여 타살했다.

남로당은 '남북연석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조선단선 반대투쟁 전국위원회'를 각 시군에 조직하고 선거 저지공작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시켰다. 즉 선거 실시까지는 '파괴·파탄시키는 투쟁'을, 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는 '무효화투쟁'을 전개했다. 본격적인 5·10단독선거 저지공작은 김구·김규식 등 단선을 반대하는 우익, 중도계 정당, 사회단체들이 남북연석회의에서 돌아온 직후 김구·김규식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5월 6일 이후에 시작되었다. 남로당은 5월 7일을 전후해서 전국적인 파업, 파괴, 맹휴, 시위, 전단 살포, 경찰서·투표소 습격, 우익요인·청년단 테러 등을 통해 격렬한 '선거저지투쟁'을 선전·선동해나갔다.

전남지역에서는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전화선·전선·전신주 절단, 입후보자·선거요원·우익인사·청년단원·향보단원에 대한 테러, 투표사무소·경찰지서 습격사건이 계속되었다. 전라남도에서는 광주, 목포, 광산, 무안, 장성, 화순, 나주, 함평, 장흥, 강진, 영암, 보성, 순천, 광양, 여수 2부 13군에서 선거 반대투쟁이 나타났다. 대개 수십 명 단위의 군중이 동원됐으며 선거사무소·투표소 습격, 우익인사에 대한 테러를 감행했다.

또 나주와 보성군에서는 조직적인 무장단체가 경찰지서, 투표소 등을 습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산악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훈련까지 받고 있던 이들 단체는 남로당이 4월 초 조직한 선전선행대 혹은 백골단, 유격대 등이었다. 이들 무장단체는 산악지대나 경찰지서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5월에 전남 동부지역의 순천·광양·여수 3개 군에서 습격사건이 발생했다. 순천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5월 19일 새벽 1시경 상사면에서 숫자 미상의 군중이 대동청년단의 집을 습격·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같은 시각 별량면에서는 마을유지의 집이 습격돼 유지가 살해되고 집이 불탄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곳에서도 새벽 1시 40분경 10여 명의 군중이 향보단원의 집을 습격하여 방화하

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양의 경우 5월 9일 새벽 4시경 20명의 군중이 지서를 습격하여 경찰 2명을 부상시키고 2정의 카빈총과 1정의 일식 장총을 탈취 도주하였으며, 군중 1명이 사망했다. 여수의 경우 5월 10일 돌산면 죽포리에서 수십 명의 군중이 투표소를 습격하자 경찰이 출동해 30여 명을 체포했다. 전라남도에서는 4월 초부터 5월 24일까지 총 2부 17개 군에서 군중들의 습격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1948년 2월 '구국투쟁'에서 발생한 2부 14개 군보다 3개 군이 더 많은 기록이며 그만큼 5·10단독선거 저지투쟁이 광범위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전남 동부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국투쟁은 구례와 순천 2개 군에서 발생한 반면 5·10단독선거 저지투쟁은 구례·순천·광양·여수 4개 군에서 발생했다. 1948년 3·1절을 계기로 구례의 경찰지서 및 우익습격사건, 순천의 시위군중과 우익학생 충돌사건을 계기로 전남 동부지역의 군중들은 점차 급진적으로 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5월 10일 제헌의회선거를 전후로 해서 더욱 촉진되고 있었다. 3·1절까지만 해도 격렬한 대규모 시위를 보인 순천은 5월 들어 우익테러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1946년 '가을항쟁'과 1948년 '구국투쟁' 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군중의 폭력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던 광양과 여수에서는 각각 경찰지서와 투표소 습격사건이 발생했다. 남북분단을 계기로 동부지방은 좌우익이 폭력적인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었다.